

류득공과 그의 시창작의 몇가지 특징

김 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인은 한편의 시를 써도 자기 얼굴과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06페이지)

실학자 류득공(1748-?, 자:혜풍, 호:랭재)은 18세기에 력사연구와 시창작으로 흔적을 남긴 사람이다. 특히 그는 시창작에서 개성이 뚜렷하여 실학과문인들가운데서도 이름있던 시인이였다.

류득공의 생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된 자료는 없지만 현재 전해지고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그가 5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외가를 비롯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삶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류득공을 학문탐구의 길로 내세웠다고 한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한 류득공은 1760년대 초엽부터 서울 백담부근에 살던 박지원에게서 문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학문을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실학자로 성장하였다.

1768년부터는 박제가, 리덕무, 리서구, 서상수, 남공철, 류금, 변일휴, 윤가기, 리광석과 함께 박지원, 홍대용의 실학사상인 《북학》사상에 공명하여 사상류파이면서도 문학류파인 《북학과》를 형성하였고 문학사에 《백담시사》(서울 백담부근에서 박지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사)의 한 성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백담시사》안에서도 시창작을 남달리 즐겨하고 우수한 시작품들을 남겨놓아 당시 국내외의 문인들로부터 리덕무, 박제가, 리서구와 함께 《사가》(한자시의 4대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류득공은 비록 서자출신이었지만 1778년에 리덕무, 박제가와 함께 규장각 검서관의 직무를 맡아보았으며 1790년과 1801년 두차례에 걸쳐 청나라 수도 연경에도 드나들면서 청나라 학자들과 사상문화교류도 활발히 벌렸다.

그는 유명한 력사책인 《발해고》를 남겨놓았고 민족의 력사를 시적으로 일반화한 《21도회고시》를 창작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경도잡지》와 《사군지》등 력사, 지리에 관한 책들을 남기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랭재집》이 있다.

류득공은 사회적처지와 미학적원칙에 있어서 다른 《북학과》문인들과 공통점이 많았지만 시창작에서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있었다.

류득공의 시창작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력사시를 많이 창작한것이다.

그의 력사시작품들에서 대표적인것은 43수의 력사시들을 하나로 묶은 단행본형식의 작품집 《21도회고시》이다. 이밖에도 《공주에서 옛일을 회고하며》, 《만월대에서 옛일을 생각하며》, 《연암, 형암과 함께 마포를 유람하며》, 《개성》, 《평양》등이 있다.

류득공의 력사시창작에서는 이전시기 문인들의 력사시창작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있다.

그의 력사시창작에서의 새로운 특징은 우선 새로운 력사시형식을 탐구한것이다.

그의 시묶음집 《21도회고시》는 43수의 력사시들을 새로운 시형식에 담아 일관시키고있는 작품집이다.

《21도회고시》에는 류득공자신이 쓴 서문이 있고 단군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국가인 고려는 물론 탐라, 우산, 명주 등 소국들 그리고 예, 맥, 한 등 종족들을 포함하

여 21개 나라와 종족들을 제재로 하고 그 도읍들을 회고한 시 43수가 수록되어있다.

매개 시문의 앞에는 해당 나라, 종족의 형성과정과 시기, 영역 등을 밝힌 주석이 있고 시문뒤에는 시구들에 대한 주해가 첨부되어있다. 《21도회고시》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시기까지 존재하였던 나라와 종족들의 역사를 존재시기의 순차성에 따라 배열하면서도 민족의 역사라는 하나의 주제로 일관시키고있는것이 특징이다.

43수의 시작품들은 모두 7언절구시형식을 취하였는데 대체로 앞의 두구는 도읍의 정경에 대한 시적묘사로서 역사적사건, 사실, 인물과 관련된 시인의 평가, 정서적주장을 터치기 위한 전제로 제시되었다면 뒤의 두구는 그로부터 환기된 시인의 양양된 주정을 간결하게 토로하는 부분으로 되어있다. 7언절구시들을 하나로 묶은 역사시형식은 이전시기의 역사시창작에서는 보기 드문 형식이며 특히 우리 나라의 역사만을 존재시기의 순차성에 따라 엮은 작품집형식도 독특한것이였다.

이전시기의 리승휴의 《제왕운기》도 조선과 중국에 존재한 왕조들의 역사를 시화하여 노래하고있지만 우리 나라의 역사만을 단일한 시형식에 담아 노래한 시문학집은 《21도회고시》밖에 없다.

21개의 도읍이라는 각이한 시적대상을 가진 43수의 시를 민족의 역사라는 하나의 주제에 꿰여 역사적순차에 따라 일관시키고있는 시문학집인 《21도회고시》는 오늘날의 련시 초형식과 류사한 형식으로서 중세 우리 나라 시문학의 형태발전에도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의 역사시창작에서의 새로운 특징은 또한 그의 역사시들이 모두 회고의 형식을 취하고있는것이다.

류득공의 역사시들은 역사적사건, 사실을 그대로 시화한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21도회고시》는 물론 《만월대에서 옛일을 생각하며》, 《평양》을 비롯한 그의 모든 역사시들도 마찬가지이다. 《21도회고시》만 놓고보더라도 의의있고 교훈적인 역사적사건, 사실들과 인물을 소재로 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시화하지 않고 시인의 형상적의도에 맞게 역사적교훈을 음미해볼수 있도록 회고의 형식을 취하고있다.

이전시기의 역사시들가운데는 역사적사건, 사실, 인물을 소재로 하면서도 많은 경우 리규보의 《동명왕편》과 같이 그것을 그대로 시화하거나 심광세의 《조선의 신화》와 같이 왜장과 박제상과의 대화내용을 그대로 시화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부분이 당시의 시점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 그대로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가 회고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류득공의 역사시들은 하나와 같이 시인이 활동하던 당시의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적사건, 사실이나 인물을 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있다. 즉 역사의 자취, 인물들의 사적이 깃든 옛 도읍들의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노래할수 있는 시의 계기를 포착하고 양양된 주정을 토로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류득공이 회고형식의 역사시를 많이 창작한것은 사람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깊이 심어주어 역사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찾고 《자기》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실학자로서의 사상적지향에 바탕을 두고있다고 볼수 있다.

《21도회고시》서문에 있는 《조선의 지지들을 들추고 역사를 회고하면서 깊이 생각되는바가 있어 한수한수 지었》다는 기록은 그의 이러한 지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시인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은 곧 그의 옳바르고 진보적인 역사관을 규제하였다. 그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역사관은 《21도회고시》에서 강대국 고구려의 지위를 삼국들중에서 특별히 부각시키고있는데서도 표현된다. 그는 왕조배렬순서에서 이전의 《삼국사기》를 비롯한 역사책들과는 달리 고구려를 세 나라가운데서 제일 앞자리에 내세웠다.

류득공의 시창작의 특징은 다음으로 운률조성에서 독특한 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는것이다.

한시운률에 밝았던 류득공은 시어와 시구의 음악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적표현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풍만한 정서와 아름다운 음향미를 가진 비교적 세련되고 특색있는 시형상을 창조하였다.

류득공은 시구를 만드는데서 소리와 글자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깊이 음미해보면서 시의 음악적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형상탐구에 힘썼으며 운률조성에 리용되는 다양한 문체론적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였다.

류득공의 시에서는 우선 쌍성과 첩운의 수법을 적절히 배합리용하여 표현적효과를 높이고 운률을 잘 보장하고있다.

시 《양화나루》와 《금강의 배안에서 잠자리 바라보며》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江上峭峰碧兀兀	강우에 솟은 봉우리 푸르러 오똑하고
江間宿霧白濛濛	강사이엔 잠든 안개 뽕얇게 자욱해라
...	...

(《양화나루》)

이 시는 쌍성과 첩운의 수법이 함께 리용된 작품이다. 시에서 《江上》은 첩운으로 음향의 조화를 이루어주고 《兀兀》은 첩글자로서 쌍성과 첩운을 겹하여주어 강우에 솟은 봉우리가 더욱 우뚝해보이게 한다. 그리고 《江間》은 두글자의 성을 같이 만들어주는 쌍성의 수법을 리용하여 어조를 부드럽고 순탄하게 해주고있다. 특히 《江上》의 《江》과 《江間》의 《江》은 음률적인 반복을 보장하고있다.

한편 《碧兀兀》과 《白濛濛》의 《碧》과 《白》은 입술소리로서 역시 음률적인 반복을 이루고있다. 그리고 《濛濛》은 첩글자로서 쌍성과 첩운의 음향적인 반복의 효과를 내고있으며 《濛濛》의 입술소리 《ㅁ》는 무거운 안개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蜻蜓復蜻蜓	여기도 잠자리 또 저기도 잠자리
飛來錦水湄	금강물가에 잠자리 날아오누나
滄江映碧眼	파란눈에 푸른 강물이 어리고
淸日纈金翎	금빛나래에 햇살이 엉키누나

(《금강의 배안에서 잠자리 바라보며》)

작품은 쌍성과 첩운의 수법을 기본으로 리용하면서도 어휘의 반복수법으로 시의 음악성을 잘 살리고있다.

시에서 잠자리를 나타내는 《蜻蜓》은 쌍성이면서도 첩운이다. 이것을 두번 반복함으로써 여기저기서 잠자리가 무리져 나는것을 표현하고있으며 가운데 끼운 《復》은 《蜻蜓》의 음향성을 강조하고있다. 즉 어휘의 반복으로 너울거리는 잠자리의 툄동미를 나타내고있다.

시에서의 반복은 어휘의 반복에만 있지 않다.

시의 음률을 분석해보면

蜻 蜓 復 蜻 蜓	飛 來 錦 水 亭
2 1 2	2 2 1
滄 江 映 碧 眼	清 日 纈 金 翎
2 1 2	2 1 2

두번째 구의 2·2·1을 내놓고는 모두 2·1·2로 되어있다. 즉 2·1·2, 2·1·2, 2·1·2로 잡자리의 룰동미를 나타내었다. 이 시에서는 어휘와 음률의 반복으로 잡자리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것을 표현하고있다.

류득공의 시에서는 또한 언어표현수법과 시행구성, 음절수 등에서 전통적인 한시형식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표현되고있다.

그는 비록 당시까지 정통문학으로 인정되어있었고 시창작의 주류를 이루고있던 한시형식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타파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시형식의 테두리안에서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펴나갈수 있는 새로운 시형식을 탐구하였다.

그가 지은 새에 대한 노래들 즉 《술작다》(소쩍새), 《비오래비》(소리개), 《김서방네 보리밭에 말이 들었네》(피썰새)와 《내각시》(비둘기), 《강남의 노래》와 같은 시들은 정형률을 가진 한시형식에서 벗어난 파격시들로서 그의 독특한 창작적개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鼎小	술작다
鼎小鼎小粟多鼎小	술작다 술작다 날알은 많은데 술이 작다고
婦憂悄悄	색시는 그냥 속이 상해도
夫來笑爲婦	남편은 돌아와 허허 웃누나
朝朝夕夕兩炊喫了	아침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녁마다 두번씩 밥을 지어
	많이 많이 먹자구나

작품에서는 소쩍새를 다른 한시에서처럼 《자규》(子規)라고 하지 않고 《정소》(鼎小)라고 표기하였다.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술작다》라는 소리와 비슷하므로 이러한 뜻을 가진 한자 《鼎小》의 뜻을 빌려서 표기한것이다.

시의 제목은 《소쩍새》라고 하였지만 시의 내용은 한자의 뜻으로 《술작다》로 되어있다.

작품은 살림살이에서 제기되는 불편과 애로를 익살과 해학적인 웃음으로 넘기며 서로 위해주는 화목한 가정생활의 일단을 짧은 시형식에 기지있게 담아 노래하고있다.

시는 표현수법에서 《粟多》(날알은 많다)와 《鼎小》(술작다), 《婦》(안해)와 《夫》(남편), 《悄》(근심하다)와 《笑》(웃다), 《朝》(아침)와 《夕》(저녁)을 대치시킴으로써 대조법과 반복법 등을 능숙하게 활용하고있다. 그러나 시형식이 더욱 독특하다고 볼수 있다.

이 시는 소쩍새에 대한 민요를 한역하였거나 거기서 상을 얻어 지은 악부시로 짐작된다. 류득공은 이 시에서 시행수, 음절수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장단구형식을 리용하고있다. 4구체로 된 시는 시행의 글자수를 6·4/5·8과 같이 자유롭게 설정하고있다. 이러한 음수률을 가진 시는 사실 한시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볼수 없다. 결국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한시형식을 따르지 않고 행구성법과 음절수가 독특한 장단구형식을 리용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시 《비오래비》에서도 나타난다.

雨來	비오래비
雨來雨來	비온다 비온다
小姑呢喃仰高槐	회나무 쳐다보며 시누이 종알종알
十日霖雨今日晴	열흘동안 오던 비가 오늘은 멎으니
洗郎羅衫張毯毯	남편의 적삼 빨아 빨래줄에 걸어야지

열흘나마 비가 와서 남편의 적삼을 빨지 못하던 여인이 비가 그치면 무엇보다 빨래부터 하겠다고 심정을 토로한 작품은 살뜰하고 부지런한 여인의 내면심리와 근면한 생활 세태를 불과 4행밖에 안되는 짧은 시형식에 담아 재치있게 노래하고있다. 시의 내용과는 달리 시의 제목은 《비오래비》라는 새이름으로 되어있다.

《비온다》라는 소리가 《비오래비》라는 새의 이름과 류사하므로 그것을 같은 뜻을 가진 한자 《雨來》의 뜻을 빌려 표기한것이다. 작품에서 표현수법도 독특하지만 매 시행의 편폭이 같지 않은 4구체로 된 장단구형식의 시형식도 특징적이다. 이것 역시 압운, 평측이 엄격히 적용되는 절구, 틀시와 같은 근체시작시법에서 크게 벗어난 파격시로서 우리나라의 동식물과 자연풍물, 우리 민족의 생활을 노래하는데서 조선민요의 특색을 그대로 되살리려는 시인의 진지하면서도 고루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혁신적인 창작태도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언어표현수법으로 볼 때 한자의 뜻과 음을 리용하여 우리 말을 표기하는 리두식표기방법을 많이 씀으로써 우리 말의 특색을 잘 살리고있는것은 류득공의 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개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류득공의 시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말을 한자의 뜻을 리용하여 지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한자의 음을 리용하여 표기한 작품들도 있다.

江南謠	강남의 노래
去日長愁寒意緊	지난날의 긴 시름 하늬바람에 실려가고
歸帆巨耐綠莎風	돌아가는 돛대는 높새바람 이겨내네

시인은 이 시의 주석에서 《서풍은 한의라고 하고 동풍을 록사풍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배사람들의 말이다.》라고 썼다.

《寒意》란 바로 조선어의 《하늬바람》이고 《綠莎風》이란 《높새바람》이다. 즉 조선어를 한자의 음으로 표현하고있는것이다.

류득공의 시작품들가운데는 귀뚜라미, 잠자리, 매미, 물고기, 소쩍새, 꼬꼴새, 비오래비, 비둘기 등 동물을 제재로 한 시들이 특별히 많은데 이것 역시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동물을 제재로 한 그의 시들은 동물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기초하면서도 그에 의탁하여 인간과 생활의 다양한 감정정서를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게 표현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류득공의 시창작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특징을 통하여 민족적인 내용과 특이한 형식으로 우리 나라 한자시문학발전에 기여한 실학과시문학의 면모를 일정하게 엿볼수 있다.